

LG상사, GP배터리 국내 독점공급

사업다각화 위한 전략 아이템 ... 2005년 시장점유율 20% 목표

캐논 카메라를 수입·판매하는 LG상사가 홍콩 골드픽 그룹의 자회사인 GP배터리와 배터리제품의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4월16일 발표했다.

세계적인 규모의 배터리 생산기업인 GP배터리는 수백여 종류의 배터리 및 충전기를 40여년 동안 전세계 시장에 공급해왔으며 중국, 프랑스, 영국, 싱가포르, 홍콩, 타이완 등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.

LG상사는 최근 국내에 디지털카메라 보급과 함께 충전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IT분야의 핵심인 광학기기 와 함께 충전용 배터리 부문을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 아이템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.

LG상사 관계자는 “LG상사는 캐논 광학기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, 현재 1%에 불과한 배터리 국내 시장점유율을 2005년 상반기까지 20%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국내 일반용 충전지 시장은 한해 6000억원으로 현재 일본의 Sanyo와 Panasonic이 시장의 85%를 차지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4/19>